

한국BASF,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BASF 여수공장은 12월17일 노동부가 주관한 <2007 노사문화대상> 대기업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노사문화대상은 노동부가 각 지역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대기업 군에 참가한 25사 중 7사를 선정해 해당기업의 노사 문화와 노사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한국BASF 여수공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비전노사문화 마스터플랜 및 다양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공동체적 노사문화와 상호신뢰도가 구축됐고 글로벌 인재육성 및 최고 경쟁력을 통한 <비전 2015>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얻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강성 노조였던 여수공장 노동조합이 2004년에는 9일간 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으나, 회사와 노조가 동참한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으로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해 2005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선언을 시작으로 2006년 최우수 노사문화 모범사례 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2007년 4월에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임금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18>